濟州島硏究 제42집
2014. 8. pp.117~147

산타페시 조사를 통한 제주 문화예술거리 방향 탐색

김 일 순*
황 경 수**
김 상 미***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선진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대상으로는 산타페시를 참고로 하고 제주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제주의 관광패턴과 프로그램을 반성하고 건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창조계급과 창조도시를 만드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역사적 요소)의 보존과 자원화, 2)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3) 문화시설과 공공공간의 재배치와 기존 시설의 활용, 4)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관광자원으로 자원화, 5) 창조산업과 창조계급의 유치와 양성, 그리고 창조도시로의 연결, 6) 명사의 거리 :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들의 거리 조성, 7)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활성화, 8) 문화예술

* 주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2공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활동을 통해 전수하는 행위 지원, 9) 주차나 치안 등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10)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 유도 등이다.

주제어 : 산타페시 사례분석,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관광, 지속가능 관광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선진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맥락에서는 창조도시, 도심으로 들어오면 문화예술의 거리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2008)는 도시와 창조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창조계급(talent)들이 활동을 창조도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고 있다. 덧붙여서 하이테크 산업관련 기술(technology),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tolerance) 등에 관심가지도록 하고 있다.

찰스 랜드리 교수(2009)는 문화예술의 거리 등을 만들기위한 조언을 하고 있다. 1) 위기문화를 만들고, 2) 창조적인 그룹과 연계와 제휴를 갖는다. 3) 잠재된 창조력은 물론 장애물을 조사하고, 4) 도시의 주요 프로젝트 중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몇 가지를 찾는다. 5) 각종 자원들이 예술로 연결될 수 있는 컨셉을 찾는다. 6) 도시의 종합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고, 7) 새로운 시도와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8)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찾고 바람직하게 알려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

해야한다. 9) 창조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10) 스스로 창조도시라 일컫지는 말고 창조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도는 자연관광에서 카지노와 같은 도박, 투기, 야간 환락관광 등으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문화예술 관광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은 시설은 물론 도시의 거리도 문화예술의 내용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제주가 가지는 잠재력을 찾아보고 제주의 문화예술활동이 거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반성하면서 제주관광의 체질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Ⅱ. 문화예술의 거리 추진과정과 맥락

1. 문화예술의 거리 개념정리

문화예술의 거리를 접근하는 개념들은 다양하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특화거리, 문화관광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1) 문화거리와 유사개념

김주영 외(2007)는 문화의 거리는 "도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독자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으로 그 가치가 인식되고 공유될 수 있고, 그러한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발전되는 도시의 일정한 가로환경의 범역"을 '문화 거리'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철현 외(2011)은 이러한 문화거리는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가 자생하거나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리로 한 도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거리는 문화시설과 공공공간,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창조공간이자, 문화유산과 컨텐츠를 가진 창조산업, 그리고 창조계급을 유인할 수 있는 창조소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즉, 창조도시의 핵심인 문화와 정체성을 내포하는 곳이 도시의 문화의 거리라고 하고 있다.

예채영(2012)은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문화거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의 거리이다. 역사의 거리는 전쟁 또는 혁명, 민주운동 등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중요 또는 문화유족에 명소가 된 경우로 궁궐이나 교회 및 성당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의 정동길 역사의 거리, 군산 근대문화 역사의 거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명사의 거리이다.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 등 유명한 작가 및 예술인을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과학자등의 생가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거리나 공간 등 명사와 관련하여 형성된 거리이다. 제주도의 '이중섭 거리', 경기도의 '나혜석 거리', 서울의 '소월의 거리'와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문화예술의 거리이다. 다양한 형태의 거리축제가 열리며 공연장·전시설 등 문화예술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 인간이 하는 활동을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펼쳐지는 공간을 말한다. 서귀포의 '작가의 산책길',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특화거리이다. 특정 업종이나 연관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적 특화거리로 먹자골목(거리), 웨딩의 거리, 음식의 거리, 카페의 거리, 가구거리, 인쇄골목거리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상업거리가 형성되어 명소화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관광거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현갑출(2006)은 석사학위논문에서 문화의 거리는 "그 도시가 갖는 독자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자연적 문화환경에 인위적인 배치를 가미시킨 일정한 공간"이나 "관광객의 흥미와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그 나라·그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거리를 형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에서는 문화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거리 개념과 연결하여 살펴보면서 유사하다고 강조하고자 하였다.

문화거리 구성요소를 박숙진(2003, 현갑출 2006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관광주체, 가로공간, 문화예술행위를 기본 3요소로하여 정의한 6대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거리 구성요소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거리의 정체성이나 독자성, 역사성 등을 반영해줄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물, 장소, 프로그램 등이 문화자원으로써 구성요소가 된다.

둘째, 잘 정리된 거리와 관련한 정보가 또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이 정보에 의해 관광객들이 접근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간에서 개최되는 지속적인 행사와 연출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 축제와 이벤트 거리예술(busking) 등이 필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넷째, 문화활동이 문화거리 내, 그리고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전수하고, 전수받아 활동하는 작가가 문화의 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다섯째, 공공지원이 또하나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거리의 수준을 지속시키고, 주차나 치안 등 관광객들이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요소들이다.

여섯째, 자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물적 환경요소들이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잘 보전되어 전해오고 있는 물적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3) 문화예술의 거리의 개념과 속성

도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며 예술가가 드나들고, 때로는 각종 이벤트와 축제가 벌어지는 특색있는 가로공간이 있다. 이런 거리에는 상가가 있기도 하고, 미술관도 있고, 골동품가게,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기도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도 한다. 그 양태는 꽃가게들이 모여있고도 하며, 시인이나 화가와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며, 그 도시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의 거리에 문화가 있고, 예술적 행위들이 있을 때, 양우창(2009)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칭하고 있다.

양우창(2009)은 윤태법(1997)의 글을 참고하면서 문화예술의 거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거리란 문화적인 요소가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의 거리로서 방문객들에게 여가, 휴식, 자아실현, 문화공간,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의 요소들이 인식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울러 대전직할시 보고서(1992)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는 도시문화 환경의 문화공간과 가로공간의 복합 개념인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의 거리로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문화적인 생각을 하고, 함께 창조하며, 편안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거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 지역의 개성이 형성되어 누구든지 잊혀지지 않는 향수가 남아 있고, 다시 찾아오면 언제나 친근하게 맞이 해주고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그러한 가로로 정의하여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관심을 가지는 요소 도출

이전 항의 문화의 거리, 문화관광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등의 개념과 속성 등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으로부터 문화예술의 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를 본 항에서 정리하였다.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구성요소들이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이 된다.

□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분석의 틀)

1)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역사적 요소) : 궁궐, 교회 및 성당
2)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
3) 문화시설과 공공공간
4) 문화유산
5) 창조산업과 창조계급
6) 명사의 거리 :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
7)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8)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전수하는 행위
9) 주차나 치안 등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서비스
10)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Ⅲ. 사례 분석 : 뉴 멕시코 주 산타페시의 예술의 거리

뉴 멕시코 주 산타페 시의 예술의 거리는 2012년 4월에 방문하여 조사하였다.[1] 조사지를 도착하는 경로 중에 로스앤젤레스(LA)의 헐리우드 거리와 산타페 시청 주변, 산타페 예술의 거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지향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위해 필요한 예술의 공간, 공연, 도시안전 등의 내용을 통해 제주도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1.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역사적 요소)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에는 궁궐, 성, 중요건물, 교회 및 성당 등이 들어간다. 산타페의 경우는 교회의 건물 등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스페틱풍의 성당, 고딕형의 성당 등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물들을 자원화하고 있다.

<표1>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과 시사점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 (역사적 요소)	설명과 시사점
	- 스페닉 풍처럼 보이기도 하는 성당은 산타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흙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성당들을 꾸미고 있었음. → 시사점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교훈을 주게 됨을 알 수 있음.

1) 사례분석의 내용은 필자 중 교신저자가 연구책임으로 2014년 12월에 수행한 "서귀포시 도시문화마케팅 기본계획수립연구,"에서 인용하고, 추가, 재정리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지역의 역사와 같이 하는 성당임. 밖에는 관련 된 분들의 동상을 설치하여 기념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작은 성당도 보존하면 훗날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시사점으로는 새로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훗날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의 경우도 이러한 자원들을 공공이 관리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2.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

산타페의 문화예술과 관광행위는 시청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시청의 로비와 복도는 모두 지역 최고의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겔러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표 2>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와 시사점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	설명과 시사점
	- 산타페 시청 복도를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모습. - 이 시청은 일반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복도를 오고가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시청에서도 문화예술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임.

	- 산타페 시청로비에 있는 조각품. → 시사점 : 제주도내 건물들의 로비에는 다양한 조각품들을 전시하고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에도 다양한 시설과 건물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안팎을 미술관과 갤러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오름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며, 바다가 보이는 해변무대, 발을 담그는 바다 무대 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시설과 공공공간

산타페의 경우는 공공공간의 시청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민간 건물들도 울타리에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표 3> 문화시설과 공공공간, 그리고 시사점

문화시설과 공공공간	설명과 시사점
	- 공공시설인 산타페 시청이 갤러리를 활용하고 있음. → 시사점 : 한 도시의 대표적인 시청건물을 예술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잇점을 누리고 있음. 장소마케팅, 도시의 이미지, 관광객들의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인디언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건물 옆 보도와 연결된 부분에 비가림 시설을 함 → 시사점 : 비가림시설은 예술활동이외에도 작가들의 작품을 파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마을 주민들이 예술공간으로 활동하여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단초로도 활용될 수 있음.
	- 건물 옆에 만들어진 비가림 시설 → 시사점 : 원도심 주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는 제주도의 흐린 날씨를 고려하여 이러한 비가림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에서도 공공공간은 물론 사적 건물도 예술행위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가림시설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내어 도시의 액티비티를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예술적 액티비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유산

산타페에서는 작은 조각품, 작은 농기구, 작은 시골집도 문화유산으로 보유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막 중의 초가를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표 4> 문화유산과 시사점

거리의 조각상	설명과 시사점
	- 거리를 향해 있는 벽에는 다양한 예술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모습임. → 시사점 : 작은 유산도 보존하고 거리를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 사막에 있는 탄광시설, 인디언 들이 활동하던 무대의 모습들을 보호하는 모습임 → 시사점 : 과거의 산업이나 그 시설들과 관련한 자원들을 보존하여 자원하는 점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사료됨
	- 사막지대의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 → 시사점 : 지금의 모습이 오래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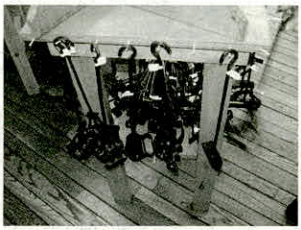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는 오래된 역사가 되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역사는 잘 보존하고,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것도 오래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스토리텔링해야 하며,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5. 창조산업과 창조계급

창조산업과 창조계급은 아마츄어로부터 최고의 예술가와 이색적

인 정신이나 삶을 살면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산업과 계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산타페에서는 인디언들의 후예들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예술품과 연결하여 산업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 5> 창조계급의 활동과 시사점

창조계급들의 활동	설명과 시사점
	- 크고 작은 인디언 관련 조각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 시사점 : 과거와 현대가 연결되어 창조계급들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창조산업과 연결하고 있는 모습
	- 과거에 사용하던 농기구, 생활용품, 소에게 찍던 낙인 등의 소재를 관광상품화하여 산업으로 연결하고 있는 모습임 → 시사점 : 창조계급들은 과거의 모든 것을 산업화 할 수 있고, 미래의 이미지를 산업화 할 수 있는 능력자들임. 이러한 창조계급들을 유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임.
	-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자전거나들이 모습임 → 시사점 : 창의적인 사고가 문화와 연결되면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 있음.

다양한 가치를 산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하려면 창조계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예술가들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6. 명사의 거리 :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

로스엔젤레스와 산타페에서는 바닥에 다양한 내용으로 유명 예술가들이나 가수, 배우, 신부님들의 문양과 손, 발바닥 등의 모형, 이름과 조각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표 6>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를 기리는 거리와 시사점

보행자도로 바닥의 기념 조각	설명과 시사점
	- 사진은 로스앤젤스의 헐리우드의 거리 보행자도로임. 유명 배우들의 이름을 도로 바닥에 붙여서 걷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도록 한 조각 → 시사점 : 도로의 바닥에 구체적인 배우들의 이름을 허락받아서 적도록 하는 것도 방법임
	- 로스앤젤스의 바닥 조각임. 실제 배우들의 손과 신발 모습을 새겨넣은 것임. 해리포터와 관련된 배우들의 조각임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 유명배우들의 손과 발의 본을 떠서 조각을 할 수 있을 것임.
	- 산타페 성당 앞의 보도에 있는 성당에서 지냈던 신부님들의 이름과 문양임. → 시사점 : 이중섭관련 사진이나 그림, 그 외 제주를 거쳐간 예술가들의 이미지를 조각하여 장식을 수 있을 것임.

제주도에서도 도로바닥에 예술적으로 꾸미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에서는 물론 제주시의 원도심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로 바닥 예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산타페에서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많겠으나 조사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화방이나 공방보다는 예술품을 전시하거나 판매, 기념품을 판매하는 행위정도였으며, 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은 거리의 악사였다.

<표 7> 거리의 악사를 통해서 본 예술활동과 시사점

예술활동하는 거리악사	설명과 시사점
	- 비가림시설 인근 거리의 악사 모습 → : 작가의 산책길을 따라서 곳곳에 혼자, 그리고 앙상블, 합주팀들이 연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공연할 수 있는 곳들은 이미 많은 곳에 준비되어 있음. 신청하고 허락받아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연스럽게 공연하고 있으면 다른 팀과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도 방법임.

제주에서는 거리예술(busking)을 위한 제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변과 도심에는 거리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있으나 거리예술을 유도하고 촉진할 제도와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와 도의회 등의 노력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8.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전수하는 행위

문화예술거리의 조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과 그 예술활동의 전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타페에서는 인디어예술품들이 주를 이루는 듯 했고, 그 내용이 전수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표 8> 예술활동을 통해 전수하는 행위와 시사점

인디언 후예들이 예술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습	설명과 시사점
	- 인디언들이 비가림 시설에서 기념품을 파는 모습 - 인디언들의 판매장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그 문화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정책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디언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파는 모습임. → 시사점 :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물건, 그리고 인디언들이 만들 수 있는 인디언 다운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매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제주도에서도 지역예술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만의 돌공예, 나무공예, 도예 등의 기술들이 전수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문화예술의 거리에서도 그 내용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주차나 치안 등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 서비스

문화예술의 거리에 예술가, 주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타페에서는 다양한 기법의 노력들이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배려하는 높은 볼라드, 요철처리의 교차로, 자연석 포장의 주차장, 속도제한, 주차장 공급과 안내시스템, 쉘터와 의자 등 이다.

<표 9> 주차와 거리의 안전과 편의 서비스 제공내용과 시사점

주민과 관광객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설명과 시사점
	- 횡단보도의 포장을 자연석으로 한 모습 → 시사점 :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
	- 횡단보도의 포장을 자연석으로 한 모습 → 시사점 : 모든 횡단보도는 자연석으로 포장하는 방법, 고원식(다소 높게 험프처럼)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되면 도시가 느림의 도시로 변하면서 안전과 도로공간 등에서의 예술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차면 바닥을 자연석으로 조성한 모습임. → 시사점 : 제주도에서도 주차면을 자연석으로 조성함으로써 제주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친환경적 주차장이 되어 세계적인 자연유산 등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지(stop)사인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 시사점 : 제주도의 많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정지(stop)사인이 지켜지도록 하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짐. 지금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있으나 운영에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음.
	- 볼라드를 높게 설치하여 다리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모습 → 시사점 :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배려한 모습임.
	- 로스엔젤스 공항의 두꺼운 볼라드 → 시사점 : 시각장애인의 경우 무릎보다 낮은 볼라드와 부딪쳤을 때 무척 아프다고 함. 따라서 두껍고 큰 볼라드를 설치하여 자동차들도 구조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고통을 최소화 한 점은 교훈적임.
	- 도로 연석에 주차금지 표시 모습 → 시사점 : 도로 연석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제주형으로 변형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의 거리에 속도제한을 하고 있음. 시속 20마일로 제한하고 있음. → 시사점 : 문화예술의 거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속도를 제한하여 걷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타페 예술의 거리 캐논 로드임. - 공공주차장의 위치를 잘 표현해주고 있음. → 시사점 : 산타페 예술의 거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전체적인 안내판은 크게 하고 있음. 문화예술의 거리와 주차장을 안내하는 전체적인 표지판을 예술적이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차장 여부를 알려주는 표지판임. → 시사점 :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주면서 거리의 안전도 담보하려는 노력은 교훈적임.
	- 주차도 예약여부에 따라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제주도의 경우에도 중요한 주차장의 경우 예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건물 주변에 쉼터를 만든 모습 → 시사점 : 건물의 공개공지나 도로의 공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도로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건물 주변에 비가림시설을 만들고 의자를 설치한 모습. 의자는 북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죽으로 설치되어 있음. → 시사점 : 사진에서처럼 비가림 시설을 예쁘게 만들거나 건물의 일부로 만들고, 그 밑에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할 수 있음. 다양한 기능의 의자를 만들면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임.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이 글로벌스텐다드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비가림과 바람막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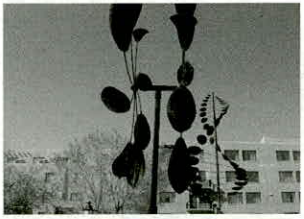
10.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로스엔젤레스와 싼타페에서는 거리의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 오픈카를 운행하고 있었다. 소형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지역의 특성인 바람을 활용한 모빌상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자원화하고 있었다.

<표 10>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와 시사점

다양한 볼거리를 위한 모습들	설명과 시사점
	- 로스엔젤레스의 소형 오픈 카를 만들어서 헐리우드거리를 관광시키고 있는 자동차 → 시사점 : 지역에 맞는 소형 오픈 카를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 산타페시 캐논 로드의 오픈 카 → 시사점 : 캐논 로드의 오픈 카는 지붕이 있어서 급한 상황에서는 비를 피할 수 있음. 전기차로 소형자동차를 만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대형 모빌을 활용한 제품들임. → 시사점 : 과학적이고 규모가 큰 모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과학과 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대형모빌, 다양한 모빌들을 모아놓은 모습 → 시사점 : 모빌 공원 형태의 모습도 바람직함.
	- 다양한 모빌의 모습 → 시사점 :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빌들로 하여금 다양성과 지루함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바람을 이용한 모빌이면서 영원히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균형추의 모습 → 시사점 : 바람과 이미지가 부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음. 바람의 움직임 있으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음.
	- 개방형 카페의 모습 → 시사점 :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오픈형 카페가 많아질 것임. 이러한 카페의 변화를 예술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제주도에서도 오픈 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형버스

를 하기 보다는 승합을 활용한 오픈 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빌을 활용한 거리, 모빌의 거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오픈 카페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Ⅳ. 문화예술의 거리 방향설정 제언

1.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역사적 요소)의 보존과 자원화

모든 건물과 지붕을 예술품화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궁, 성당, 성, 그리고 농사용 창고 등도 모두 관광자원화하기위하여 규제를 하고, 복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건축물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유자원에 대한 미래를 위한 규제라는 차원의 법이나 조례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지역 모든 곳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자연을 활용하는 관광자원에서 문화예술의 관광으로 변화하려면 거리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공연, 거리예술, 모든 공공기관의 겔러리화 등 제주도 전역을 관광자원의 맥락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시설과 공공공간의 재배치와 기존 시설의 활용

제주도에서의 문화시설과 공공공간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간 균형배치, 그리고 기존 공간의 수준높은 운영, 시설개선 등이라 할 수 있다.

읍면동지역의 문화수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음향시설이 잘 되었거나 아름다운 공연장 등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심시가자를 중심으로 좋은 공연장이 있음에도 운영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제 기능을 활발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다. 기존 시설들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운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관광자원으로 자원화

제주도는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다만 관심의 부족과 자원화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 등이 부족했을 따름이다. 자연자원보존을 위한 규제정책을 펴듯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건물은 물론 신화와 역사의 보존과 자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과 도구, 농어업을 위한 배와 도구제작 기술 등을 다시 복원하여 보존하고 자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핵할 필요가 있다.

5. 창조산업과 창조계급의 유치와 양성, 그리고 창조도시로의 연결

플로리다 교수의 주장에서처럼 창조계급이 창조도시의 주체가 되고, 도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문화이주해온 문화예술가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창조산업의 주체가 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자연자원못지않게 많은 문화예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계급에 대한 배려가 이러한 자원을 창조산업으로 연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6. 명사의 거리 :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들의 거리 조성

제주도에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명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 조선시대의 유배, 한국전쟁시대의 문화예술가들, 현재 문화이주해온 예술가들 등 무수히 많다.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는 이중섭거리이외에도 추사 김정희의 거리, 안익태의 거리, 변시지의 거리, 변훈의 거리, 박목월의 거리 등 많은 예술가들의 이름을 스토리텔링화한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7.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활성화

제주도에서는 예술을 생산의 목적이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관광이라는 산업과 부가가치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다. 거리예술 공연, 축제, 박물관들의 역할, 공연장들의 수준높은 공연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펼 필요가 있다.

8.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전수하는 행위 지원

제주도에서도 대를 물려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도자기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움직임이 박물관, 전통 민요, 놀이패 등으로 이어지면서 제주도의 문화자원은 풍부해질 것이고 문화예술활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제주도만의 특징을 가지는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돌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품, 나무를 활용한 조각품, 동을 활용한 조각상 등 다양한 장르에서 기술이 전수되어 예술장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9. 주차나 치안 등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문제와 도로의 편의시설을 개선하

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의 공급은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편리하게 시설하고, 정보체계를 갖추어 주차장을 찾아서 회전하는 차량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도로시설의 개선은 우선해야 할 일이고, 보행자도로나 산책길에서는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10.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 유도

제주도지역성을 반영하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 세 개의 범주에 모든 논의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빌, 노상카페에 우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람과 관련된 상품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카페에서도 거리의 퍼포먼스를 즐기고자하는 욕구가 생기면서 오픈 카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경향을 반영하는 모빌과 오픈 카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선진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대상으로는 산타페시를 참고로 하고 제주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산타페시의 자원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의 틀을 문화예술의 거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론연구를 통해서 찾았다. 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산타페시의 자원과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에 따라 제주도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정책제언을 추가하여 글을 마치게 되었다.

제주의 경우는 자연자원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을 듣지만,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도시발전과 연결시켜 활성화시킬 때이다. 관광객들은 철새와 같아서 필요한 먹이가 있으면 왔다가 실증을 느끼거나 장애요소가 있으면 오지 않는다. 제주의 관광패턴과 프로그램을 반성하고 건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창조계급과 창조도시를 만드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정책제언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1)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역사적 요소)의 보존과 자원화
2)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3) 문화시설과 공공공간의 재배치와 기존 시설의 활용
4)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관광자원으로 자원화
5) 창조산업과 창조계급의 유치와 양성, 그리고 창조도시로의 연결
6) 명사의 거리 :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들의 거리 조성
7)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활성화
8)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전수하는 행위 지원

9) 주차나 치안 등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10)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 유도 등이다.

참고문헌

김주영·장준호(2007), "시민참여에 의한 문화의 거리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역사회개발학회논문집」제32편 제3호.

대전직할시(1992), "중앙로 문화의 거리 구상,"

박숙진(2003), "한·독 문화관광거리 국제비요연구 : 관광자원 문화행사 및 축제·운영시스템·관광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동진(2007), "우리나라 거리예술(busking)의 현황과 발전과제," 「문화정책논총」제18집.

양우창(2009), "문화·예술의 거리 업종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5권3호.

예채영(2012), "대구광역시 앞산 문화거리의 활성화 방안-앞산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예술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윤태범(1997), "경기도 문화의 거리 조성의 바람직한 방향," 「경기 21세기」11/12월호.

이화원(2000), "프랑스 거리극 연구 - 유형별 공연과 축제의 특성 및 의의," 「연극교육연구」 제6집, 2000.12.

정철현·김종업(2011),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거리 활용방안 : 부산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현갑출(2006), "문화관광거리의 장소마케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황경수 외(2014.12), "서귀포시 도시 문화마케팅 기본계획 수립연구 - 작가의 산책길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이원호·이종호·서민철 옮김(2008),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 Richard Florida(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찰스 랜드리(2009), 메타기획컨설팅 한국어판 기획,「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역사넷 : Charles Landry(2006), 「Creative City Making」.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Jeju Cultural Art Street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City of Santa Fe

Kim, Il-soon*
Hwang Kyung-soo**
Kim, Sang-m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propose the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advanced cases in the foreign country for the establishment and vitalization of the cultural art street in Jeju Island.

The main target area was the city of Santa Fe and set to apply on the regions of Jeju. To reflect the tourism patterns and programs of Jeju and to make Jeju a healthy and sustainable tourist site, the cultural art street that makes the creative class and creative city using the culture and art must be vitalized. The policy details proposed are as follows including 1)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historical element) of cultural identity and turn them into the resources, 2) the support for the vitalization of cultural art and tourist activities, 3) the rearrangement of cultural facilities and public spaces an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facilities, 4)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and turn them into the cultural tourism resources, 5) the invitation and

*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in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motion of the creative industry and class, and connection to the creative city, 6) the street of well-known person: create a street of an artist, musician, writer, etc., 7) the vitalization of the art producing activities, 8) the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passing down through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9) the continuous provision services for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 tourists such as parking, public order, etc., 10) the diver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things to see, eat and play.

Keywords : Case study of the city of Santa Fe, cultural art street, cultural tourism, sustainable tourism

교신: 황경수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E-mail: kshwang@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4. 5. 24.
수정완료일 2014. 7. 28.
게재확정일 2014. 8. 10.